

위·대장 정기 검진 '평생 건강 안전벨트'

신체 정기 중 우리나라 국민들의 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부위가 있다. 바로 위와 대장이다. 서구화된 식단과 가족력, 스트레스, 음주, 흡연 등이 주 원인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을 82세로 잡았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은 성인 3명 중 1명 꼴인 36.2%인데 1위가 위암(13.6%), 2위가 대장암(12.5%)이다.

암 위험군은 전통적으로 분류됐던 40세 이후 중장년층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젊은층도 위암과 대장암으로부터 안전한 상황이 아니다. 위나 대장의 암이 위험한 이유는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나 눈에 띄는 변화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증상이 심각하다고 느껴질 때는 이미 병이 깊게 진행된 상태라 치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위·대장에 생긴 용종을 발견하지 못해 방치하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 위암,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 95%

위암은 매년 약 3만명씩 발생하는 매우 '흔한 암'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은 95%에 육박한다. 위암 치료의 성공의 지름길은 조기발견이다. 문제는 위암에 걸렸어도 증상이 없다는 것이다. 간혹 소화불량, 속쓰림을 호소하기도 하고 체중감소, 출혈, 빈혈 등이 나타난다.

위암의 원인은 지속적인 음주나 흡연, 짜고 자극적인 음식 섭취 등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흡연을 하면 폐암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도 마찬가지다.

류성태 123내과의원 원장은 "위암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발견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며 "무증상의 환자가 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용종 모두 암으로 발전하지 않아

위·대장 내시경을 통해 용종이 발견된다면 이야기를 들으면 암으로 발전할 거라는 두려움에 쌓이지만 용종이 모두 암이 되지는 않는다.

용종은 점막의 일부가 주위 점막 표면보다 돌출해 마치 혹처럼 형성된 것을 말한다. 우리 몸의 소화관이나 점막이 있는 모든 기관에서 생길 수 있다.

특히 대장에 생기는 대장용종은 대장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혹이 돼 장의 안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나라 성인 약 30% 정도에서 발견된다.

10명 중 4명 '건강 자신감'으로 정기점검 외면
스트레스·식단·가족력으로 암 발병률 가장 높아
40세 이후 주기적 내시경 검사로 초기 발견 가능
'내시경 소독·도구 올바른 사용 병원 확인 필요'

대장 용종은 크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종양성 용종'과 가능성이 거의 없는 '비종양성 용종'으로 나뉜다. 종양성 용종에는 선종성 용종, 유암종 등이 있고, 비종양성 용종에는 과형성 용종, 염증성 용종, 과오종, 지방종 등이 있다.

종양성 용종 중 유암종의 경우, 주로 직장에서 발견되며 크기가 커지면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어 악성종양으로 분류된다. 무엇보다 가장 주의해야 할 용종은 '선종'이다. 대장암의 약 80% 이상이 선종에서 시작된다.

선종은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좋다.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험미경 소견에서 용모 형태의 세포를 많이 포함하고 있을수록 대

장암 발생 가능성이 높고, 진행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선종이 암으로 진행하기까지 보통 5~10년의 시간이 걸려 내시경 검사만 잘 받아도 초기에 암을 예방할 수 있다.

◆ 40세부터 2년마다 위내시경 필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암 검진을 받은 사람은 6명에 그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10명 중 4명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암 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건강에 대한 과신으로 암 검진을 소홀히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용종은 가장 흔하게 내시경 검사를 통해 우연히 발견된다. 몸이 아프지 않고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검사를 안 받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특히 대장 용종을 떼어내지 않고 그냥 두었을 경우 10년후 8%가, 20년 후에는 24%가 대장암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암 진단 뿐만 아니라 조직검사와 즉각적인 용종 제거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위 내시경 검사는 만 40세 이후 2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5년마다 진행하라고 권하고 있다.

이전 검사에서 대장 용종이 발견됐거나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해 대장내시경 검사 간격과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

류 원장은 "위·대장암은 유전적인 영향도 높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거나 평소 이상 증상이 느껴지는 경우라면 내시경보다 이른 30세부터 더욱 자주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보다 안전한 검사를 위해 내시경 소독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병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원장은 또 "용종 절제술을 시행하는데 사용되는 부속 기구는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멸균해야 하는데, 멸균과정에 문제가 있어 감염이나 오염된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주신분
류성태 원장
123내과의원

정명호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과학기술한림원 의약학부 학부장 선임

전남대병원은 19일 정명호 순환기내과 교수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의약학부장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앞으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의약학부의 학술활동 및 국내외 석학의 교류와 국가 정책 자문 등의 업무를 이끌어 가게 된다.

이번 정 교수의 학부장 선임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남대병원의 위상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

정 교수는 지난 2006년 의약학부 한림원 정회원으로 임명된 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의약학부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는 과학과사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994년에 설립된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계 석학들의 모임으로서, 과학과 기술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석학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회원을 선발하며, 현재 정책학부·이학부·공학부·농



수산학부·의약학부 등 5개 학부에 487명의 정회원을 두고 있다.

이중 의약학부는 의과대학·약학대학·치과대학·한외과대학·간호대학 교수 등 총 99명의 정회원으로 구성됐다.

국내 최고의 심장학 명의로 꼽히는 정 교수는 지금까지 총 1천527편의 국내외학회지 논문, 저서 78권 등 탁월한 연구실적을 거두고 있다.

또 국내 최초로 세계 4대 심장학회 지도전문자의 자격증(FACC·FAHA·FESC·FSCAI)을 취득했고,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한국혈전지혈학회·한국중재의료기기학회·대한심혈관중재학회·대한심장학회 심근경색증 연구회 회장 등의 다양한 학회를 이끌어 왔다. **성정대기자 wordflow@srb.co.kr**

전남대학교·화순전남대·빛고을전남대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 잘하는 병원

전남대학교병원·화순전남대병원·빛고을전남대병원이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평가 받았다.

세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 해 4월까지 전국 6천 3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성폐쇄성폐질환 4차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전남대학교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부문에서 지난 2014년부터 4년 연속 1등급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개원한 빛고을전남대병원은 병원 부문에 2015년·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1

등급을 차지하게 됐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관리의 질 향상을 도모해 더욱 심각한 질환으로 이환되는 것을 줄이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평가는 평가지표와 모니터링지표 등 2개 부문에 6개 영역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평가지표는 ▲폐기능 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 비율 ▲흡입기관리확장제 처방 환자 비율 부문에서 점수제로 이뤄졌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도가 좁아지면서 공기의 흐름이 나빠지고, 폐기능이 저하되는 호흡기 질환이다. **성정대기자 wordflow@srb.co.kr**

범희승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필리핀핵의학회 '명예평의원' 선정

화순전남대병원은 19일 범희승 핵의학과 교수가 최근 필리핀핵의학회 '명예평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필리핀핵의학회는 외국인으로서 핵의학 분야의 교육업적이 탁월한 핵의학자를 명예평의원으로 엄선하고 있다.

명예평의원으로 선정된 학자는 미국·독일·싱가포르의 교수 등 3명뿐이며, 올해 범교수가 4번째로 선정됐다. 핵의학은 원자력을 의료에 접목해 질병·신체 변화를 신속히 진단하고, 방사선을 치료에 활용하는 분야다. 범 교수는 현재 아시아지역 핵의학 협력회



의(약칭 ARCCNM)의장으로서도 활동중이다. ARCCNM에는 20여개국, 1만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아시아·오세아니아 핵의학·생물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범 교수는 핵의학 분야의 선진기술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의 젊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수프로그램을 수년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성정대기자 wordflow@srb.co.kr**

생활정보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75
- B형 : 40×75

깨끗한 자연환경을 살리는 파수꾼
유)오케이철거종합건축

오케이철거종합건축은 스테이트/석면철거 정부허가 업체입니다.
민중과 상생함을 기업이념으로 친환경 철거를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 ▲ 스테이트 석면 철거 전문
- ▲ 공장 / 주택 / 상가 철거
- ▲ 집수리 및 미니크레인(압쇄기 보유)
- ▲ 인력 상담환경 / 모든 중고 고가매입

H. 010-2595-2116
☎ 062)952-2117, 956-2116
Fax. 062)942-2116

http://unisolar21.com

태양광 발전소

발전된 전기를 한전에 매전하여 매일 연금식 소득 발생

- 발전소 부지 매수 · 매도
- 발전소 자금 대출 가능
- 건축물 가중치 1.5 적용
- ▶ **니주 다시 송촌: 100KW 30구좌 분양 사업주 모집**
- ▶ **해남 송산: 400KW 개발행위 완료**
- ▶ **고흥 도화 덕중: 1MG 2구좌**
- ▶ **고창 계당: 1MG 1구좌 / 500KW 1구좌**

개발행위 완료, 선로 연내 개통

☎ 010-9340-5519
☎ 062)672-5519

컨테이너 아주컨테이너

- 컨테이너 농가 주택 주문 제작
- 중고 사고 팔고
- 할부 가능

※ 직원구함

아주크레인 www.ajucon.co.kr
☎ 062)955-4100 휴. 010-6648-8990

http://shan.lguplusappstore.co.kr

신세계백화점 협력업체

새한익스프레스

보통보험가입업체 관허 25호

포장이사·일반이사·보관이사

- 부담없이 전화주시면 방문 견적 상담해 드립니다.
- 에어컨, 비데, 정수기 등 무료 분리 서비스
- 커튼, 맥자, 버티컬, 블라인드 등 무료 탈부착
- 각종 가구 먼지 제거 등 확실한 마무리 정리정돈

대표전화 **269-2222**
무료전화 **080-269-5000**

동구 261-8600 서구 364-8600 남구 653-5524
북구 511-8600 현산 941-8524 문인 269-5544

뽕/스트레스 질환

경희한의의원

불면증 · 우울증
핍병 · 공황장애

062) 365-1541
화정동 추신회관 맞은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 제007062-증-307호

**공감하면
상품특독**

카카오톡으로 [사랑방]친구와 친구를 맺고 사진, 사연, 상행사를 올려주세요.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매주 3명을 선정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사랑방 특독
사랑방 사진관
사랑방 행사
매주 3명

Home plus
20,000